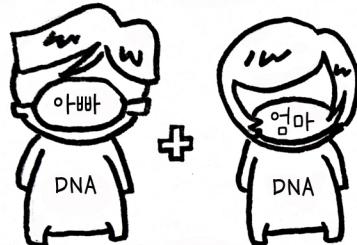




DNA는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에요.

태어날 때 엄마와 아빠한테서 DNA를 받게 되는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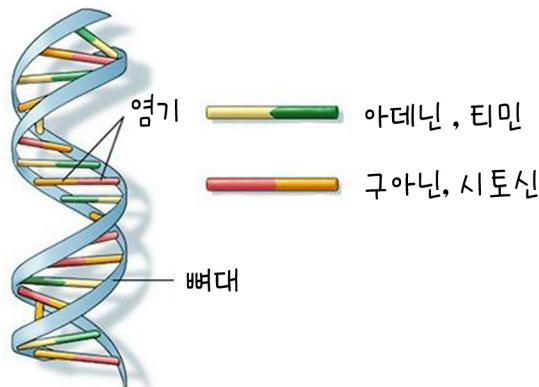
이 DNA는 눈, 코, 입의 생김새 등 모든 것들을 설계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.



엄마나 아빠와 닮은 것도 DNA를 엄마 아빠한테서 받았기 때문이에요.

DNA는 두 개의 뼈대와 그 사이를 이어주는 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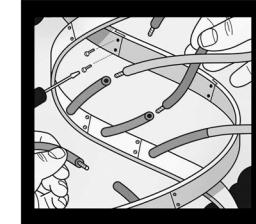
염기에는 A 아데닌, G 구아닌, T 티민, C 시토신이 있고요.



아데닌은 항상 티민이랑 구아닌은 항상 시토신이랑만 연결할 수 있어요.



두 개의 뼈대와 염기가 결합하게 되면 DNA는 “이중 나선 구조”로 만들어지게 되요.



이런 DNA를 자르고 붙여서 원하는 걸 만들어 내는 게 “유전 공학”이에요.

DNA 위에는 사실 유전자가 여러개 있어요.

그 중 한부분은



시력에 관한 것일 수 있고,

다른부분은



항생 작용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에요.

항생 작용을 하는 유전자가 필요하다면, 제한 효소를 이용해서,



그 부분을 자르고, 다른 DNA를 자른 후 그 자리에 붙이면 새로운 DNA가 생기겠죠?



이 DNA는 이제 항생 작용을 가능하게 해줘요.